금주의 법구-〈아함경〉
들을 때는 들리는 것만 있게 하고
볼 때는 보이는 것만 있게 하고
생각할 때는 생각만 있게 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02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8월 12일) 2022년 9월 7일 수요일



조계종 원로회의는 9월 2일 제70차 회의를 열고 제37대 총무원장에 당선인 진우 스님을 인준했다. 인준 직후 진우 스님은 조계사 대웅전으로 자리를 옮겨 부처님께 알리는 고불의식을 진행했다. 사진은 고불문을 봉독하고 있는 진우 스님. 사진= 박재완 기자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확정

조계종 원로회의, 9월 2일 만장일치 인준

진우 스님, 조계사서 고불 의식
기자회견 열고 당선 소감 발표
"불교중흥의 새 역사를 열겠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당선인 진우 스님이 원로회의 인준을 통해 선거법상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차기 총무원장으로 최종 확정됐다. 진우 스님은 원로회의 인준 직후 조계사 대웅전 부처님전에 삼배로 고불하고 기자들과 만나 당선소감을 밝혔다. 진우 스님은 "사부대중과 함께 불교중흥의 새 역사를 열겠다"며 차기총무원장으로서 포부를 밝혔다. 제37대 총무원장 임기는 9월 28일부터 4년이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대원)는 9월 2일 제70차 원로회의를 열고 제37대 총무원장에 당선인 진우 스님을 인준했다. 회의는 재적의원 18명 중 17명 참석으로 성원된 가운데, 총무원장 인준안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진우 스님은 원로회의 직후 원로의원 스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데 이어 조계사 대웅전으로 이동해 고불의식을 진행했다. 부처님전에 삼배한 스님은 고불문을 통해 "제37대 총무원은 높고 넓은 조계사 법당과 같이 많은 것을 담고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새로운 시작이지만 많은 경험을 가진 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만큼, 언제나 편하게 말씀하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 모든 노력들이 불자는 물론 우리 사회에 함께 회향하는 당연한 역할임을 되새겨 실천해 가겠다"고 발원했다.

진우 스님은 이어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과 만나 당선소감을 발표했다. 스님은 단일후보 추대에 대한 감사와 막중한 책임감을 전하면서 "사부대중과 함께 불교중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통과 교구, 포교 3대 종책기조를 모든 종무행정의 근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스님은 "종단의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위치에서 합리적으로 소통하는 가운데, 교구본사의 역할과 활동이 활성화되어 지역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가꾸고 지혜로운 포교를 통해 사회의 유익함이 더욱 증장된다면 불교가 나아가는 길은 더없이 크고 넓어질 것"이라며 "알고 보면 모두가 소통의 대상이자 교구활성화의 주인공,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회에 풀어내고자 하는 소중한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차기 총무원장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종책 및 공약에 대한 계획을 밝힌 스님은 "한 가지도 쉬운 일은 없겠지만 공동체의 일심을 바탕으로 수승한 가르침을 따라 올곧게 나아간다면 반드시 성취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사부대중의 지혜와 공감이 세상과 함께하는 원력으로 나아간다면 불교중흥의 길이 환하게 열릴 것"이라고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으로 확정된 진우 스님이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한국불교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졌다.

이 가운데 한국불교 위기로 손꼽히는 출가자 감소 문제와 관련, "모든 종단과 종도들이 고민하는 첫 번째 화두가 출가자 감소 문제"라고 심각성을 재차 지적한 스님은 "지엽적인 임시방편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며 "종단 안팎의 여러 시스템과 제도적 여건들을 재정립해 점검하고 포교를 통한 불자수 증가, 재정적 토대 마련, 출가시스템 개선 등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구체적인 포교방안을 수립해 현대인들을 위한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불교홍포라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동력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신념이다.

불교중흥의 개념에 대한 견해도 함께 밝혔다. 스님은 "불교중흥은 추상적이고 이제는 식상하기까지 한 용어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바탕은 시대를 이끌어가는 불교의 힘이라고 생각한다"며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불교로 거듭나야 하며 그 해답이 바로 한국불교 전통인 참선과 명상, 팔만사천법문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총무원장 인준이 확정된 직후 제37대 총무원장 취임준비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취임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는 호산 스님과 진화 스님이 선임됐으며, 수행단에는 원명 스님, 대변인에는 성화 스님, 사무국장에는 원묵 스님이 이름을 올렸다. 위원회는 취임법회준비단(단장 호산 · 지현), 인수인계단(단장 진화, 부단장 성화), 종책개발단(단장 만당 · 삼조)으로 구성됐다.

원행 스님, 프란치스코 교황 만난다



원행 스님



프란치스코 교황

9월 19일, 종지협 순례 중
바티칸서…종교 화합 대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바티칸을 방문,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종교 화합에 대한 대화를 나눈다.

국내 7대 종교 지도자 협의체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대표의장 원행, 이하 종지협)는 해외 성지순례단을 꾸려 9월 13~21일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바티칸 등을 순례할 계획이다.

순례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김희중 한국 천주교 대주교, 김현성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임시대표회장,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손진우 유교 성균관장, 박상종 천도교 교령,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등이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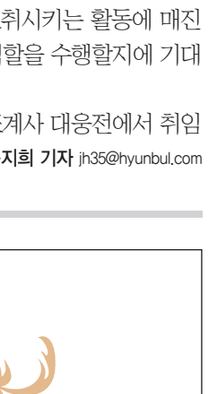
특히 7대 종단 지도자들은 순례 기간 중인 9월 19일 바티칸을 방문,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은 이번 교황과의 만남에서 종교 간 상생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세계 평화와 종교 화합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만남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위원회 위원장인 김희중 대주교가 바티칸 교황청 대사 등을 통해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주교는 지난 4월 7대 종단 지도자들이 호남지역을 방문했을 때 바티칸 등의 순례를 제안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방한 당시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인 김영주 목사 등 국내 종교 지도자 12명과 만남을 가진 적이 있다. 임은호 기자

국회 후반기 정각회장 주호영 의원

정각회, 9월 1일 총회서 선출



제21대 국회 후반기 정각회장에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선출됐다.

국회정각회는 9월 1일 본회의 후 제4간담회장에서 후반기 국회정각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열고 후반기 회장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선출했다. 전반기 국회정각회장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예회장으로 후반기 활동을 이어간다.

주호영 정각회장은 5선 의원으로 현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중진의원이다. 2004년 국회의원 당선 때부터 정각회 회원으로 꾸준히 활동을 이어왔으며, 제20대 국회에서 후반기 정각회장을 역임한 후 21대 국회에서는 명예회장으로 활동해 왔다.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부터 스님들과 인연이 깊었고 불심 또한 돈독해 굵직굵직한 불교계 현안에 두루 관심을 기울여 왔다. 특히 종교적 인연을 넘어 전통문화 정책과 관련해 국회와 정부, 불교계간 소통 창구로서 남다른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문화유산진흥특별위원장을 맡아 불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가운데, 전통문화 보존 정책 등을 포함한 불교공약 추진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주호영 의원이 국회에서 종단과 원활한 소통을 이끄는 것은 물론, 불자 국회의원들의 신행활동을 돕고 신심을 고취시키는 활동에 매진해 온 만큼 후반기 국회정각회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에 기대감이 모인다.

한편, 국회 정각회는 9월 6일 오전 7시30분 조계사 대웅전에서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주지 지현

사부대중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JOGYESA / 02.768.8500 / www.jogyesa.kr